

정신건강과 자살에 대한 인터넷 언론 보도 경향 분석

이명수^{*,**†} · 고정아^{*,**} · 오정하^{*,**} · 신윤식^{*,**} · 박정숙^{*,**}

Trend of Internet Media Report for Mental Health and Suicide

Myung-Soo Lee, M.D., MPH,^{*,**†} Juna-A Ko, PRN,^{*,**} Jeong-Ha Oh, MSW,^{*,**}
Yoon-Sik Shin, M.D.,^{*,**} Jung-Suk Park, MSW^{*,**}

■ 국문 초록

목 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정신건강, 정신질환 그리고 자살에 대한 최근의 인터넷 미디어의 보도 경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방 법 :

2009년 3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정신건강, 정신질환, 우울, 자살이라는 4개의 중심단어를 가지고 인터넷 기사를 검색하였으며 총 1,495건의 관련기사가 검색되었다. 검색된 기사를 7개의 영역과 8개의 문제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검색된 기사를 긍정적, 중립적, 부정적 관점 영역으로 분류하였으며, 보도 영역, 문제유형과 관점 간 교차분석을 수행하였다. 보건복지부의 자살관련보도지침을 근거로 지침 적합성에 대해 분류하였다.

결 과 :

자살관련 보도가 가장 많았으며(607건, 40.6%) 다음으로 우울(310건, 16.0%)에 대한 보도가 많이 검색되었다. 21%의 뉴스는 의학정보 또는 정신건강과 관련한 사회적 활동 등에 대해서 다루고 있었다. 검색된 기사를 관점별로 분류해 본 결과 247건(16.5%)의 보도는 긍정적으로 분류되었으며 부정적 관점으로 분류된 기사는 385건(23.9%)으로 나타났다. 정신의학적 정보를 제공하는 기사의 82.2%가 긍정적 관점으로 분류되었으며, 부정적 관점의 기사 중 93%는 사건사고 영역의 기사였으며 사건사고 영역 기사의 97%는 자살사건 보도(369건)가 차지하고 있어 자살관련 보도의 대부분이 부정적 관점의 기사로 분류되었다. 자살사건에 대한 보도 중 89.7%의 기사가 “언론은 자살자의 이름과 사진, 자살 장소 및 자살 방법, 자살까지의 자세한 경위를 묘사하지 않아야 한다”는 권고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68%의 기사가 “언론은 충분하지 않은 정보로 자살동기를 판단하는 보도를 하거나, 자살동기를 단정적으로 보도해서는 안된다”는 권고기준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 론 :

자살을 포함한 정신건강문제에 대한 언론보도에 대해 효과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미디어를 포함한 일반대중의 인식과 태도를 변화시킬 효율적 전략수립이 필요하다.

중심 단어 : 인터넷 언론 · 정신건강 · 우울 · 자살.

서 론

뉴스, 포털사이트를 기반으로 하는 인터넷은 현대사회의 매우 중요한 정보제공채널이자 사회적 맥락 형성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는 중요한 매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뉴

스는 대중에게 알리는 것과 대중의 관심을 반영하는 두 가지 역할을 함으로써 사람들이 무엇을 알고 또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해 실질적인 기여를 하게 된다. 정신건강을 포함한 사회전반의 주제에 대한 대중의 인식은 언론매체를 통해서 전달되는 기사를 통해 영향을 받게 된다. 특히 현대사회에서는 인터넷 사용이 일반화되면서 일반 시민들이 인터넷 기사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2009년 한국인터넷 진흥원의 인터넷 이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만 6세 이상의 인구에서 인터넷 이용자 수는 35,740명, 이용률은 77.6%로 나타나고 있다.¹⁾

*서울시정신보건센터
Seoul Mental Health Center, Seoul

**용인정신병원
Yong In Mental Hospital, Yongin

[†]Corresponding author